

84. 사막에는 모진 광풍

찬송가 278곡 / 작사 : 이명직

1. 사막에는 모진 광풍 육지에는 눈비오고
 2. 가난하여 천대받고 무지하여 당한 멸시
 3. 백년해로 맺은 후에 서산낙일 같이 하자
 4. 고해만 리 조 각 배에 창해일 속 이 몸 신 고

해 상 에 는 거 친 물 결 때 때 일 어 부 닷 히 고
 세 력 없 어 당 한 억 울 약 한 자 의 슬 품 이 라
 균 은 맹 세 깨 어 지 니 애 원 하 는 눈 물 이 여
 천 국 향 해 출 발 하 니 하 나 신 앙 지 침 일 세

지진화재 종종있고 독창악질 유행하며
 어디가서 호소할까 원한품은 눈물이라
 음녀되고 주님떠나 의지없는 우리들의
 갖은풍파 모든위험 악전고투 인내하고

여기저기 살인강도 안심못할 세상이라
 심령죽어 천부지통 자식죽어 생명지통
 슬픈사정 누가알라 허허탄식 눈물이라
 멀리천국 바라보며 소망중에 나아가세

5. 가까온다 가까온다 멀리되던 천국문이 한결음씩 한결음씩 나의분향 가까온다
 예루살렘 복된내집 멀리보고 즐겁더니 이제와서 바라보니 화려하고 찬란하다
6. 어찌말로 형용하리 그광채가 거룩하며 그성사면 정방한데 동서남북 광활하니
 장으로나 광으로나 일만이요 이천이라 열두성터 견고한데 열두사도 이름있네
7. 성곽들의 기초석은 각색보석 꾸몄는데 첫째터는 벽옥이요 둘째터는 남보석과
 세째터는 옥수로다 네째터는 녹보석과 다섯째터 홍마노며 여섯째터 홍보석과
8. 일곱째터 황옥이며 여덟째터 녹옥이요 아홉째터 담황옥과 열째터는 비취옥과
 열한째터 청옥이라 열두째터 자정인데 그터위에 세운성은 금강석을 쌓았도다
9. 그성높이 장엄하니 일백사십 사척이요 열두성문 열렸는데 동서남북 각각세문
 열두문에 들어가며 열두지파 이름썼네 매문마다 진주인데 성문주야 열렸도다
10. 성문안에 들어가서 거리마다 돌아가며 정금으로 입혔으니 유리같이 맑았도다
 성안중앙 한복판에 생명강이 흘러가니 수정같이 깨끗한데 풍파전혀 일지않네
11. 좌우언덕 돌아가며 생명나무 보기좋다 그잎사귀 그늘좋고 만국나라 소생하네
 매달마다 열두종류 새열매를 맺어주니 심고거들 염려없는 평화세계 여기로다
12. 일월성신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빛이 영원무궁 비취주니 불야성이 여기로다
 주님께서 위로하고 눈물씻어 주셨으니 눈물날일 다시없고 애통하여 울일없네
13. 예수님의 승리로서 죽음정복 하시었고 부활승천 하셨으니 원수사망 다시없네
 치료하는 광선아래 우환질고 씨도없는 신천신지 여기로다 할렐루야 무궁세계
14. 여호와산 올라가서 그성전에 들어갈자 누구누구 이었던가 손이정결 맘이깨끗
 허탄한데 뜻안두고 거짓맹세 안하는자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기록 있는자라
15. 최초순교 아벨이고 주와동행 에녹이며 믿음순종 아브라함 연단인내 읍-성도
 평화사자 이삭이며 승리청년 요셉성도 율법창립 모세선지 유년선지 사무엘선지
16. 목자대왕 다윗이며 복음선지 이사야와 백절불굴 다니엘과 눈물선지 예레미야
 충언직간 세례요한 이방개척 사도바울 성령충만 스테반과 십자가상 회개강도
17. 열두사도 일어서고 역대순교 성도들이 세계만국 각처에서 구름같이 모여드는
 불가승수 성도들이 구주예수 보혈공로 세마포로 단장하니 화려하고 찬란하다
18. 종려가지 손에들고 주의구원 노래하며 대요정정 당당하게 진주문에 들어가서
 천군천사 좌우편에 엄숙하게 늘어서고 천국찬양 명랑하게 울리면서 영접하네
19. 주님예수 빛난얼굴 천군천사 시위로써 영광중에 나타나서 개선성도 영접하네
 영광관과 승리의관 자랑의관 금면류관 의의관과 생명관을 이름불러 씌우시네
20. 내손잡고 위로하는 주님손을 쳐다보니 손바닥에 못자국이 뚜렷하게 보이누나
 모든성도 감격하여 무릎꿇고 경배하니 이로부터 영원무궁 주와함께 살리로다